

고흥 주요 관광지에 '하늘을 나는 택시' 뜬다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75% 공정률...버티포트·착륙대 등 설치 하반기 드론·UAM 엑스포 개최...탑승 체험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

고흥 주요 관광지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보게될 날이 멀지 않았다. 고흥군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1단계 실증 시설 공사가 75% 공정률을 보이는 등 하늘을 나는 택시를 띄울 준비가 소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시설 공사에는 국비 348억원을 투입해 1단계 실증 시설인 버티포트, 계류장, 착륙대, 격납고 등을 설치한다.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을 통과한 컨소시엄에 한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K-UAM 1단계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흥항공센터와 고흥만 일원을 UAM 실증구역으로 공모해 2차 드론훈선자유화구역에 선정되는 등 UAM 기체를 하늘에 띄우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힘썼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넘어 미래 교통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바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군은 이를 인지하고 국내 유일의 실증지역에 이어 관광형 UAM 지역 특화 시범사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26년 UAM을 타고 고흥의 주요 관광지

를 누비는 시범운영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여수시, 신안군과 함께 공동으로 UAM 항공개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PNU드론, 대우건설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올해 하반기 제1회 드론·UAM 엑스포를 개최해 행사장 내 UAM 탑승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실제 UAM 탑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은 전국 최초의 버티포트를 보유한 지역이고, 반도지역으로써 초기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비행조건이 충족된 최적지"라면서 "풍부한 고흥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형 UAM을 띄우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시설인 버티포트, 계류장, 착륙대, 격납고 등을 설치한다. 하늘을 나는 택시(UAM) 모형도. <고흥군 제공>

'순천사랑상품권' 상반기 556억원 판매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여수·광양보다 20~30% 많아

순천시가 올해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을 556억원 판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판매액보다 0.3% 늘어난 금액이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화폐 판매 실적은 여수시, 광양시보다 각각 30%, 20%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순천시는 92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순천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비율이 4%에서 2%로 축소되고, 30억원 초과 매출 가정점 사용이 제한됐음에도 순천시는 지역화폐 판매액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을 월별로 보면 1월 138억원, 2월 79억원, 3월 66억원, 4월 104억원, 5월 103억원, 6월 64억원 등이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새해·명절을 맞아 순천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진행했다. 2·3월에는 5% 할

인을 이어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한 4월에는 8%의 특별 할인을 시행했다. 지난 6월부터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연 매출 30억원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 206곳에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됐다.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정원박람회 성공 운영을 위해 예산소진 때까지 특별 할인을 8%를 유지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만큼 하반기 상품권 판매 추이와 이후 정부 동향을 파악해 내년도 순천사랑상품권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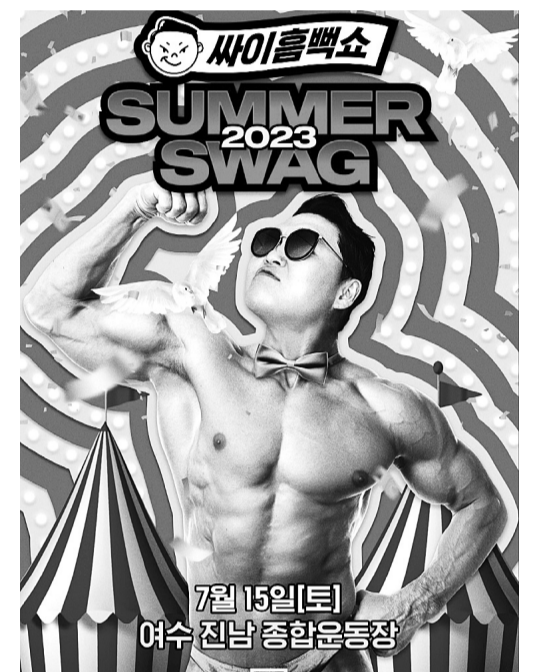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순천시 제공>

여수시, 주말 '사이 흠뻑쇼' 안전대책 논의

진남종합운동장 관객 2만5000명 예상...교통·의료지원 등

여수시가 오는 15일 열리는 '사이 흠뻑쇼' 공연에 대비해 종합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와 김중기 여수시 부시장 주재로 주변 교통·소방안전·의료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진남종합운동장에서 3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2만5000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열린 같은 공연에서는 주변 일대가 매우 혼잡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여수시는 이날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거치는 시내버스 노선 막차 시간을 20분씩 연장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 신속 및 순환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지도인력 77명을 주요교차로 및 병목 지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공연 주최 측은 응급치료 인員 20명과 구급차량 3대를 배치 운영한다. 여수시는 구급 차량 1대와 보건의료지원팀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공연 전날인 14일 여수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여수시 안전자문단 등과 공연장 민관 합동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즐겁고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 주민 45명 '웰니스 관광 전문가' 양성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구례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은 지역민 45명을 대상으로 '구례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7일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청마관과 천은사 등에서 진행한다. 주민 45명이 교육에 참여해 농업·산림·관광·축산·보건 등 다양한 분야 웰니스 관광 전문 교육을 받는다. 웰니스는 '웰빙'과 건강(피트니스)을 합친 말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이상적으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차원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교육생들은 웰니스 관광 이론과 농촌 웰니스 융합 사업 사례 교육을 받고, 노르딕 워킹(지팡이 없이 걷기) 전문 과정을 거친다. 최희정 웰니스엔스파이어연구원 원장이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론을 전하고, 김용근 장성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은 농촌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김학주 한국노르딕워킹연맹 지도사는 웰니스 관광의 하나인 노르딕 워킹 전문가 교육을 한다. 이지는 한국웰니스관광협회 교육실장과는 웰니스 관광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구례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이 오는 15일까지 7일간 진행하는 '구례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 참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교육생 심중구씨(구례읍 이장 단장)는 "새로운 농촌 관광의 패러다임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며 "여러 전문 분야를 하나로 묶는 통합 농촌 관광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말했다. 조남훈 구례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단장은 "구례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웰니스 관광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심화 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면 구례 관광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구례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은 사회적 경제, 인문학, E-비즈니스 역량 강화, 농식품 개발, 산림치유사 2급·치유농업사 2급 자격 교육 등을 해왔다. 지역 치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농식품·치유관광 분야 20개 모임을 발굴해 조직 역량을 키우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中企 물류비 기업당 200만원 지원

완제품 출하·수출 기업 100곳 대상...28일까지 신청

곡성군이 지역 중소기업 물류비를 기업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곡성군은 기업 한 곳당 200만원씩 총 100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종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출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가 지원된다. 기업당 물류비 50% 범위 안에서 최고 200만원

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체이면서 공장 등록이 완료됐으면 신청할 수 있다. 물류비 지원 신청은 공장이 있는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제조업체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해 곡성에 좋은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양시, 질병정보 감시체계 강화



광양시가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모니터 요원 107명 위촉

광양시가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07명을 위촉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은 병의원, 학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104개소 보건관리자로 구성됐다. 모니터 요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 홍보 ▲감염병 환자 발견·진단 시 발생 현황 통보 ▲감염

성 질환 유행상대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는 모니터 요원의 역할, 감염병 감시체계, 국내 감염병 정보 및 예방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하절기 장마철과 폭염으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연말까지 용역비 2500만원 확보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00만원을 받는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자체 에너지정책 기획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여수시가 선정됐다.

시는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에너지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향후 5년간 에너지정책 기본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역에너지 계획은 ▲지역의 에너지 현황 및 향후 추이 ▲에너지 공급대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 ▲신재

생 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안 등이 담긴다. 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범시민 운동 방안 및 시민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 실천 계획 등을 정립해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현 여수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공모 선정으로 여수시 에너지정책을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용역 추진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